

— 12월호 Vol.10 —

한동해 포럼 Newsletter

# 을독

2021. 12. 30



2022  
임인년  
희찬출발

## 성탄과 새해에 울독의 비전을 되새기며,

(1)

한해가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성탄절이 되면 고마운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글과 그림을 그려서 성탄 카드를 돌리던 그 시절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동네 교회를 다닌적이 있었습니다. 친구 4명과 마음이 맞아 같은반 친구들 70명에게 (그때는 그렇게 콩나물 교실이었으니까요) 밤새 카드를 그려서 아침 일찍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등교한 친구들이 카드를 열어보며 신기해하고 더러는 고마워하던 부끄러운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연변에 들어가 조선족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공산당 나라에서 성탄절이 무엇인지 산타가 무엇인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기숙사 방마다 돌아다니며 선물과 카드를 써도 주면 학생들이 계면쩍게 받아들이고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해 두해 지나가면서 성탄의 의미와 그 기쁨을 깨닫게 된 학생들로부터 거꾸로 많은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 카드가 소중한고 고마워서 몇달동안 창틀이나 책상위에 줄지어 펼쳐놓고 가끔씩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을 찾아와 가르쳐주셔서 고맙다고, 자기들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에 울어나는 고백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정진호 회장  
(한동대학교 교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매년 성탄 카드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카드들은 카톡방에 이리저리 복사하고 돌리는 온라인 카드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답을 하기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여기저기 기관마다 의례적으로 프린트하여 돌리는 연하장 카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올해에 민주평통 경제과학분과 상임위원이 되는 바람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내외가 보낸 카드와 연하장도 도착했습니다. 이런 카드는 답신을 안해도 좋으니 외려 낫습니다. 그래도 이런 만져지는 카드가 요즘은 희귀해서 반갑기까지 합니다. 조만간 오프라인 카드는 역사 속에서 퇴출되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2)

경상북도청에서 찾아와 남북경협포럼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 어느새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경북도에서 자리를 깔아준 셈입니다. 남과 북을 잇는 상생과 공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제안들 과제를 모아서 사업계획서를 만들다가, 이 뜻자리가 거두어지기 전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모아 그릇을 만들어보자고 시작한 것이 유원포(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입니다. 너무 이름이 길다고 약칭 “한동해 포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나의 동해에서 남과 북이 함께 만나보자는 것입니다.



2021. 9. 30 울독세미나

그러다가 남과 북이 이어지는 날,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아갈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면서 유라시아를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동해를 21세기의 지중해로 만들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잇는 새로운 반도세력의 시대를 일으켜보자는 원대한 꿈입니다. 그 동해의 중심에 배꼽과도 같은 울독 즉 울릉도와 독도가 있으니, 우리 포럼의 중심점이 울독이 되었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 유라시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차게 울독에서 창립기념 세미나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몰아닥친 코로나 팬데믹의 거센 풍랑 속에서 지난 2년을 겨우 살아남다시피 하면서 고비고비를 넘겨왔습니다. 답답한 경상북도 담당자가 유튜브 방송이나 줌으로 하는 세미나라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왔고, 우리 역시 그것을 탈출구로 여겨 울독 TV도 만들어보고 울독 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훈련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울독이 우리 포럼의 브랜딩 가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이 시대와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세상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닳을 올린 '울독 세미나'를 좀더 전문적으로 구성해보고, 울독TV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지 연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과제로 총회에서 통과된 것 중에 메타버스 상황에서 남과 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관건은 지금 꼭 막혀있는 남과 북, 또는 남북미중의 정치적 지형이 새해에는 조금은 변화되어서 서로가 오가면서 이 꿈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한상 꿈꾸는 자, 비전을 품은 자는 외롭습니다. 그 비전은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결국 그것이 현실에서 실상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비전도 없고, 결국 미래에 다가올 실상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나눌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결국 미래의 실상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과 평화를 위한 특강을 요청받아 가는 곳마다 그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울독의 비전을 듣고 깊이 감동 받으신 수원에 사시는 도예가님이 우리 포럼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유라시아를 담은 울독 도자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새로운 용기가 나고 외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 우리에게는 이런 동지들이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울독 도자기>

20세기 초, 라이트 형제가 글라이드를 날리고 마르코 니가 무선통신을 발명한 이후 100년만에 우리는 지구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주관광을 하겠다고 사람들을 우주에 보내는 우주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갈수록 빨라지는 인터넷 속도는 빛의 속도로 대용량 정보를 주고받으며 현실세계와 맞먹는 메타버스 가상우주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매트릭스 같은 SF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세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포럼은 이제 현실세계와 가상우주의 양쪽을 넘나드는 그런 비전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공간 역시 과거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야만 총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던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꿈과 비전이 온라인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더 깊이 더 넓게 나누어질 수 있을지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든 코로나 세상을 한해동안 잘 버텨내신 유원포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4인의 동지들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외롭지 않으며, 새해를 다시 용기를 내어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새해에는 더 큰 희망과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장 정진호 올림)

## 남북교류 단상

중국 칭화대 유학 시절 기숙사 식당에서 우연히 북한에서 온 교수를 알게 되었다. 호기심에 한번 놀러 가도 되냐고 했더니 방 번호를 가르쳐 주어 시간을 내어 찾아갔다. 미리 약속할 방법도 없고 해서 불쑥 찾아가 방문을 두드리니 깜짝 놀라며 들어오란다. 책상과 침대 하나 달랑 놓인 좁은 방 벽에 김일성 부자 사진이 중앙에 걸려있다. 악수를 청하고 멋쩍게 인사를 나누는데 방문을 열고 나가더니 옆 방의 교수를 불러오는 게 아닌가. 나중에 알아보니 북한에서 유학 온 교수와 학생을 지도하는 책임자로 김책공대 교수였다. 정작 찾아가간 교수는 꿀 먹은 벙어리인 양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불러들인 교수와 주로 환담하다 돌아왔다.

그 뒤 김책공대 교수와 저녁을 같이할 기회가 있어 단 둘이 학교 밖 식당에서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북한은 핵실험 전으로 미국에서 북한이 곧 핵무장을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를 통해 압력을 가하던 시기라 자연스럽게 대화는 핵 문제로 옮겨졌다. 김책공대 교수는 북한이 핵무장 할 의사도 없고 핵실험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데 미국이 우릴 괴롭히고 있다고 열을 낸다. 그러다 뜬금없이 요새 남한에서 월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정색하며 나를 쳐다본다. 어이가 없어 최근에 몇 명이나 월북했냐고 물어보니 수천 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월북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며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린다.



강태호 위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명예교수)

나도 장난기가 발동해 남자 혼자 월북하면 결혼도 시켜주냐고 물으니 TV보다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찍으면 정부에서 결혼시켜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며 묘하게 웃음 짓는 모습이 아마도 나를 월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았나 보다. 그 후로 학위논문 쓰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북한 교수가 어느 날 보이지 않았다. 북한 유학생과 교수들 모두 북한에서 귀환명령이 떨어져 돌아갔다 한다. 북한에 대한 호기심은 우연히 시작되어 뜨거운 사명감으로 내 가슴 한 칸을 채웠다.





<그림1> 칭화대학 정문

당시에는 기업인의 방북이 자유롭게 이뤄지던 시절이라 국내학회에서도 북한과의 교류에 관심을 가져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방북과 교류가 활발하던 시기였다. 내가 속한 학회에서 원로교수 한 분이 대북교류에 관심을 가져 나에게 방북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부탁을 받았다. 마침 연변에서 김정일화 전시회가 열린다는 정보를 듣고 연길로 날아갔다. 행사장에는 김일성 배지를 단 사람들이 많았는데 책임자를 수소문하니 현장에 나와 있던 김정일화 위원회 위원장을 소개받았다. 한국에서 온 대학교수라고 인사하니 반갑게 맞아준다. 김정일화를 소개해 줄 터이니 따라오라 해서 걸어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닌가? 처음 인사를 나눌 때 옆에 인민복을 입은 인사가 있었는데 옆에 없는 것을 보고 그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지도원으로 남조선 인사를 자기 혼자 접대하는 게 부담스러웠는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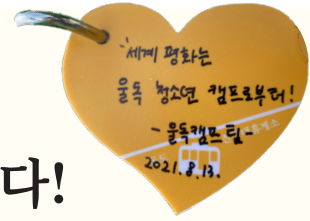
<그림 2> 김정일화 축전, 2019.2. 자료 출처 : 조선중앙통신

북측인사들과는 행사장 내 호텔에 투숙했는데 다음날 아침 자연스럽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만나 조경 분야 남북교류 가능성에 대해 문의를 하니 지도원이 따로 만나자는 것이다. 다음날 단둥이 만나 교류와 방북 가능성을 타진하니 비용이 많이 드는걸 알게 되었다. 당시에 남한과 교류하는 북한의 기관과 단체는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방북 초청장을 보내고 행사를 진행한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후로도 북경에서 머물면서 중국 정부 인사들과 북한 방문 중재를 타진해보고 지도교수에게도 부탁하였으나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데 정신 판다고 핀잔만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단지 열정 하나로 북녘 동포를 만나고 조경이란 학문을 통해 서로를 알아보려고 노력한 시기였다. 당시 정부 당국에 허가 없이 북한 인사를 만나는 것은 범법행위란 것도 나중에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을 10여 차례 오르고 두만강과 압록강 변을 찾아 북한 땅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던 때가 있었다. 중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북한 부스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찾아가 책과 우표를 사고 북한에서 온 안내원과 말도 섞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기억이 새롭다.

세상은 돌고 돌아 다시 남북경제협력포럼을 통해 유원포 회원이 되고 30여 년 전에 추억을 되살려 통일문제를 되살리게 되었다. 이제 다시 북한 동포를 만나고 북녘땅을 밟게 된다면 좀 더 진솔한 자세로 임하고 싶다. 더욱 성숙한 자세로 그들을 품고 나아가리라 다짐해 본다.

## 울독 문화캠프 다녀왔습니다!



말로만 들던 울릉도 독도. 이 땅은 우리 한국 땅?  
아니 한반도의 땅, 조선 민족의 땅!

북에 있을 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땅이라고만 듣고 자랐다. 17년의 세월 동안 북한에서 독도는 북한의 땅이라고만 알고 살았던 나다. 그 이유는 북한도 독도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이다. 울릉도와 독도에 관련된 영화<피 묻은 락파>를 만드는 등 한국만큼이나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피 묻은 락파의 내용은 고려시기 일제로부터 독도에 있는 금불상을 지키는 것과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현재 독도문제로 인해서 북한, 한국, 일본이 다투기 시작한 것은 1904년 러일전쟁 때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뺏은 땅이다. 이후부터 일본은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라고들 우기고 있고 지금까지 한반도와 독도문제로 인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 것인가? 이것은 시간이 흘러 남북의 역사와 역사가 만나는 통일의 그날에야 독도가 완전히 우리민족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본다.



김주혁 학생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나는 2021년 8월 울독 문화 캠프에 정진호 교수님과 더불어 여러 멤버들과 함께 갔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만 알고 있던 나로서는 독도에 가보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으로 여겨졌다. 울릉도·독도(이하 울독)에 간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내가 정말 독도에 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나에게 독도는 유튜브나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상상의 땅이었다. 대한민국에 온 것만 해도 상상을 초월한 일인데 독도까지 갈 수 있다니 표현력이 부족한 나로서 그 황홀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독도에 간다는 통보를 받고 너무 기쁘고 멤버들과 함께 가게 될 날만이 기다려졌다.



울독에 가기 전에 많은 여러 가지 일정표도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울독에 배를 타고 간다는 것과 포항에서 갈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포항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한동대가 있는 지역이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날씨가 잘 안 맞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말은 들은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날이 좋아져서 울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다.



드디어 울독에 갈 날이 되었다. 우리는 출발을 위해 포항에 다 모였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날씨가 좋지 않아 바람과 비가 많이 오는 탓에 파도가 거세져서 우리가 타고 가기로 한 배가 이틀이나 미루어졌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많이 아쉬워했다. 교수님과 우리는 2일 후에는 무조건 갈 수 있게 하늘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했다. 많은 아쉬운 마음으로 이틀을 더 기다리게 되었지만, 그 이틀 동안의 시간은 독도에 대한 그리움을 더 증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냥 어릴 때 여행을 간다고 했다가 여행을 떠날 시간이 미루어져서 아쉬움과 동시에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처럼 말이다. 2일이 지나고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여객선 터미널에 일찍이 갔다. 근데 여기서도 마음의 조마조마함은 극도로 올라가는 시간이었다. 갑자기 우리가 타게 될 배가 파도가 거세서 30분 더 늦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30분 후에도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으면 오늘도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더 졸이는 말이었다. 교수님께서서는 한쪽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다. 교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발 바다를 잔잔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꼭 울독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속으로 기도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신 것인지 30분 후에 드디어 개찰구가 열리고 길게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한 명, 두 명씩 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도 차례가 되어서 개찰구를 나가서 배에 올랐다. 우리는 배를 타고 나서야 조용히 만세를 불렀다. 드디어 배에 탔다고 말이다.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나 넓고 푸른 바다를 가르면서 가고 있는 나는 너무 흥분되었다. 마침 나는 창가 쪽에 앉아서 창밖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육지와 멀어지고 파도를 가르는 파도 배와 부딪히는 소리가 흥분된 나의 마음을 더 뛰게 했다. 그렇게 흥분되어서 가고 있는데 1시간가량 지났을까 찾아올 것이 온 것이다. 나의 혼을 다 빼버리는 사탄과 같은 멀미 녀석이 나오겠다고 몸 안에서 움틀 움틀 하는 것이다. 나는 배를 타기 전 멤버들이 건네준 멀미약을 먹지 않고 떠난 것이었다. 나는 여태 멀미를 해 본 적이 없었기에 배 정도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안 먹고 떠난 것이다.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것이다. 나는 끝내 멀미 녀석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나오지 못하게 참으려고 최대한 버텨 보았지만 못 참고 봉투에 나의 머리를 처넣고 말았다. 그런데 한 번 허락했더니 멀미 녀석은 더 신나서 요동을 치는 것이다. 나는 이후 머리 위에는 멀미 봉투, 앞에는 휴지통을 놓고 울릉도에 도착하는 동안 휴지통을 끌어안고 갔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울릉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치가 아름다웠다. 평상시에도 자연의 풍경을 보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울릉도의 풍경을 보니 까 절로 감탄의 소리가 나왔다. 나는 ‘와와 너무 멋지다!’를 반복하면서 울릉도의 풍경을 보고 있었다. 이후 우리는 숙소로 이동했고 다음 날 독도 갈 준비를 했다.



1년에 50번도 갈까 말까 할 독도로 가는 배를 운이 좋게 타고 갈 수 있었다. 우리는 독도에 도착하는 40분 동안 ‘독도는 어떨까,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한데?’와 같은 이야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독도에 도착했다. 독도에 도착 후 나는 순간 깜짝 놀랐다. 마치 내가 백두산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낀 것이다. 나는 북에서 백두산을 많이 가봤고 백두산의 정기와 풍경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느낌을 독도에서도 느낀 것이다. 독도 노래에서 독도는 새들의 고향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독도에는 나무가 한 그릇도 없는 것이다. 새들이 살려면 나무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나의 편견 의식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다. 백두산도 정상에 올라가면 나무 한 그릇 없다. 독도는 마치 백두산 정상에 올라간 기분이었다. 이런 풍경의 경외감은 잠시 민족의 아픈 역사가 슬픔으로 북받쳐 왔다.

독도가 북한 땅이라고 북한에 있다고만 생각하고 살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아름다운 독도의 땅을 밟아 보고 한민족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독도에서 <독도는 우리의 땅>이라고 <우리는 하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눈물의 감격을 하였다. 남북한이 함께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독도에서 민족의 하나 됨을 외치면서 한반도 통일의 문이 열리는 그날을 길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모두 희망찬 한반도 통일의 길에서 마음과 목소리를 내어 보아요. 한나(한라)에서 백두로 두 봉우리를 잇는 곳이 독도 한나(한라)에서 독도와 함께 백두로!!**



## 12월의 소식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십니까? 연말정기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1. 법인운영현황보고

- 회원 수  
2021년 유라시아 원이스트씨포럼 회원 수는 74명입니다. (12월 기준)  
금년도 신규 입회 회원님은 아래 12분입니다. 환영합니다 ~  
(강명구, 구세연, 김예진, 김태락, 류재영, 안경모, 이성균, 이윤정, 임진규, 최기식, 허중수, 황은하)
- 예산  
2021년 입금 합계 : 8,939,967원 (총회 기준)  
출금 합계 : 9,038,770원  
총 잔액 : 34,941,769원

### 2. 법인 사업보고(2021년)

- 2021년 2월9일날 온라인으로 결산총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결산총회는 유라시아 원이스트씨포럼 설립 이후 첫 결산총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 해주신분들 위임장을 보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2021년 5월31일날 유라시아원이스트씨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가 “남북 지자체간 우호도시 연합을 통한 교류협력 사업 발굴” 이라는 주제로 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아래 주제로 류재영 박사님과 황우승 전무님께서 특별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 (황우승 신원에벤에셀 전무)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의 의미와 남북결협 및 유라시아 교통 물류 미래 전망” (류재영 한양대 교수)
- 2021년 9월30일 포럼 목적사업인 울독세미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소통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우호도시 연합으로 남북경협을 논하다” 라는 주제로 연구진(아무르콜라겐(주)대표이사), 류재영(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이재원(포항지역학연구원장), 조성찬(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 4분이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강태호(경주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정성모(포스텍철강대 학원 교수) 3분이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 2021년 2번째 목적사업인 통꿈교육개발사업은 유라시아원이스트씨포럼 청년회원을 중심으로 정진호 회장님 지도하에 프로젝트팀 울독을 결성하였으며, “울독문화캠프” 라는 남북교차관광 플랫폼을 연구 제안 하였습니다. 상상공모전이라는 평화경제오픈랩 공모전에도 참여하고 SBS팀과 함께 페이스 북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에 참여해 울릉도 독도에 답사를 다녀왔으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 앞에서 발표를 하는등 남북 청 소년과 청년이 만나서 소통하는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중입니다. 2024년 강원도 청소년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2022년도 추가적으로 사업아이디어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 3. 감사 선임 및 보선의 건

그동안 수고해주신 최철영 감사님께서 대구광역시 지방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시면서 감사를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포럼의 감사로 수고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2년부터는 정성모 박사가 이사회 추천을 받아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4. [안건] 2022년도 목적사업

- 통꿈교육개발사업 (메타버스 활용 남북교류 플랫폼 개발)
  - 2021년 통꿈교육개발사업의 연계과정으로 남북관계 경색, 코로나 펜데믹을 반영한 (온라인, 가상현실, AR/VR) 남북이 함께 공감 할 수 있는 교육개발사업 도출을 목표로 하고 3개년 (2022년~2024년)의 사업기간을 잡은 목적사업
  - 1차년도는 홈페이지 활용 강화 및 커리큘럼 시안, 플랫폼 연구 및 방안 개발 남북협력사업계획 통일부 제출 예정
- 온/오프라인 울독세미나 및 책자발행
  - 남북경협 및 통일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본 포럼의 설립목적과 방향성을 찾아가며, 관련 지식과 철학을 수립하고 공동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해당 내용을 모아 책자를 발행

### 5. [안건] 2022년도 예산(안)

• 수입: 이월금	27,941,769원
회비	8,760,000원
후원금	3,522,974원 (2022년도 후원금 3,202,704의 10% 증가된 금액)
<b>합계</b>	<b>12,285,000 (이월금 포함: 40,222,600)</b>
• 지출 : 목적사업비	
1사업 (통꿈교육개발사업)	7,000,000원
2사업 (울독세미나 및 책자발행)	6,000,000원
경상비(인건비, 운영비)	9,280,000원
<b>합계</b>	<b>22,280,000</b>

### 6. 내년도 진행예정사항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 대북지원사업자 신청

### 7. 회원가입 안내

① 소개글



② 입회 신청서



③ 정관



\* 재정상황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